

부쿠레슈티 國際科學史會議 參加報告

송 상 용

國際科學史會議은 1928년 파리에서 시작되어 IUHPS(國際科學史·科學哲學聯合) 주최로 3년 또는 4년마다 열리는 과학사의 큰 잔치다. 그 열여섯번째 모임이 東歐圈에서는 세번째로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1981년 8월 26일부터 9일 동안 있었다.

51개국에서 1,800여명의 과학자들이 모여든 이 회의는 「科學과 技術, 휴머니즘과 進歩」라는 주제를 내걸고 科學史 연구의 현단계와 과학기술의 진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폭넓게 토의했다. 16개분과, 11개 심포지엄, 5개 특별회의로 이루어진 매머드회의에서 1,20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유네스코와 루마니아 아카데미의 참여를 얻어 「社會 및 人間의 發展을 위한 科學技術의 未來動向」이란 圓卓討論會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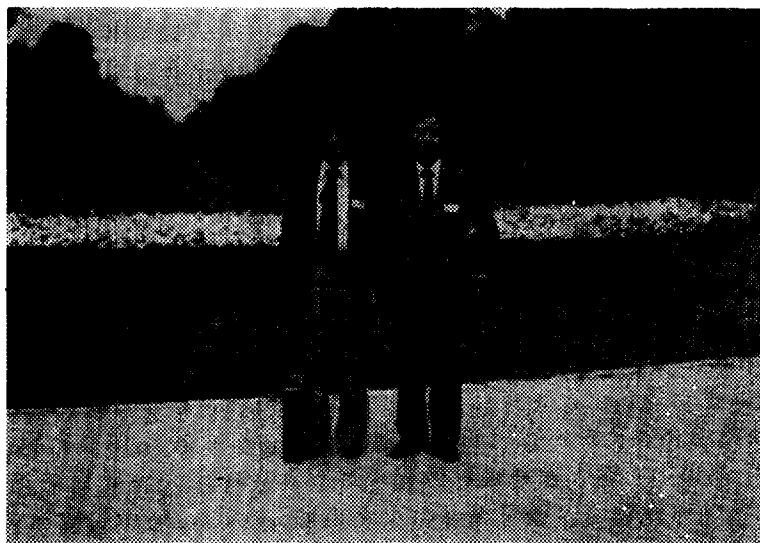
5,000명이 들어찬 아카데미 宮殿홀에서의 개회식에는 대통령부인이며 高分子化學者인 엘레나 차우세스쿠第一副首相 겸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의장이 참석, 정치적 짙은 연설을 했다. 회의기간 부쿠레슈티 시내에는 푸른색 포스터와 명찰을 가슴에 단 참가자들로 뒤덮였고 TV와 신문들이 연일 집중 보도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참가자들이 출입국때 외교관대우를 받는 등 루마니아로서는 이 회의가 舉國的 행사임이 분명했다.

14회 때부터 참가해 온 韓國科學史學會는 全相運부회장(현 회장)을 團長으로 한 4명의 대표를 보냈고 한번도 모습을 나타낸 일이 없던 北韓도 처음으로 3명을 참가시키으로써 과학사의 남북대결이 이루어졌다. 루마니아와 國交가 없는 한국은 입국때부터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빈에서 비자를 못받은 필자는 8월 26일 부쿠레슈티로 날아가, 空港에서 입국허가를 얻었고 東京에서 비자를 받은 金永植 교수(서울대)도 같은날 란든으로부터 도착했다. 그러나 全교수와 朴星來 교수(外大)는 파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필자의 전화를 받은 한국대사관의 연락으로 회의가 시작된지 닷새만에 비자 없이 날아왔다. 루마니아 組織委員會는 북한을 DPRK, 한국을 南韓으로 호칭했고 뒤늦게 참가신청을 내서 프로그램에도 오르지 못한 북한은 참가자명단에 올리면서 논문제목까지 나와 있는 한국을 누락시키으로써 빈축을 샀다. 사무국을 찾아 엄중항의했으나 補充名單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은 북한 대표와 대사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熱力學(김영식), 解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IUHPS 총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 왼쪽에서 朴星來·全相運교수와 필자



회의장 가까운 공원에서 金永植교수와 함께

렸다. 처음엔 인사도 받지 않는 차가운 태도였으나 차츰 부드러워져 꽤 많은 학문적 對話가 있었다. 主體性을 둘러싼 가벼운 입씨름도 있었지만 소련, 中共의 학계현황에도 감감한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연구성과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과 한국사학계의 多樣한 연구활동 소개는 분명히 큰 충격이었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차, 담배도 거절하고 사진은 통일된 다음에 찍자고 했을 때, 그리고 다른 나라 학자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分斷의 비극을 절감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큰 수확은 한국이 국제지구 IUHPS에 「대한민국」으로 加入한 것이다. 북한이 신청할 것을 예상, 맹렬한 로비활동을 폈으나 아무 준비도 못해 온 그들은 총회에 들어오지도 않아 싱겁게 끝났다. 28일 총회에서 한국은 에이페, 파키스탄과 함께 33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졌다(B 範疇). 거수표결에서 소련 등 공산국들도 찬포를 던져 그리고리안 議長(蘇)은 반대를 묻지도 않았고 구면인 東獨·항거리대표들이 축하의 악수를 청해왔다. 2차총회는 次期會長으로 히버트(美)를 뽑고 표결로 85년 제17회 회의를 버클리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소련을 비롯한 東歐 여러 나라, 몽고의 학자들과 잦은 대화와 자료교환을 했고 文化革命 때문에 20년만에 다시 나타난 席澤宗 등 中共 학자들과 우의를 돈독히 한 것은 적지 않은 성과였다.(舊稿)

放後の 純粹科學(필자), 西歐天文學 導入(박성래), 古代靑銅技術(전상운)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특히 박교수의 발표가 니덤을 비롯한 동양과학자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에서는 사회과학원 소속 정성철(철학), 김성구(?), 문병우(한국사)가 왔는데 異常氣候, 東醫學에 관한 발표를 했다고 하나 우리는 몰라서 보지 못했고 러시아말로 된 논문만 받았다.

북한대표들은 우리의 대담한 接近에 당황, 守勢에 몰



회의장 부쿠레슈티대학 앞에서